

Global Green
Environment Company

KC NEWSLETTER

Vol. 59



IN THIS ISSUE:

남아공
바이오매스 플랜트
5MW 수주

해외 관계사
소식들

KC코트렐
이태영 대표
경제사절단 참가

South Africa

Busby Renewable Biomass Plant 5MW 남아공 진출의 교두보



플랜트 사업부는 2014년 6월말 Busby Renewable Biomass Project를 수주하였다. 이번 수주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로 앞으로 KC 코트렐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기원한다.



KC 코트렐, 델렉(Delek) 정제소 성공적 시동

텍사스 정유 공장의 Delek 정제소에 KC Cottrell Inc가 설계하고, 공급하고, 설치한 전기집진기가 2013년 말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다. 빠른 진행을 보인 이번 EPC프로젝트는 KC Cottrell Inc가 계약 체결에서 새 전기집진기를 가동하기까지는 약 1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존 전기집진기의 철거, 토목, 새로운 시스템의 확립 52일 동안 이루어졌다. 새로운 전기집진기의 가동 이후, 정제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집진기 역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KC 코트렐, SIPC 마리온 4호기 ESP 업그레이드

KC Cottrell Inc.는 SIPC(Southern Illinois Power Cooperative)의 Marion Station 4호기 ESP의 업그레이드 턴키 계약을 수주하였다. KCUS는 유럽식 inlet field를 미국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top rapped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Engineering & Procurement는 KC Cottrell Inc.의 플레밍튼 사무실(뉴저지)에서 수행하였다.

KC 코트렐의 서비스 및 자문계약 체결

KC Cottrell Inc.는 애프터 마켓 서비스와 컨설팅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Southern Company는 두 개의 공장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였으며, Duke Energy와 MATS Compliance 프로젝트의 컨설팅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위한

한

정비

로지 코트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의 IED 포럼 후원

2014년 5월 22일에 IED (산업 배출물 지침)에 대한 개최 포럼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기업과 정부 및 공급 업체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연사로써는 폴란드 환경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기금 대표, 유럽 부흥 개발 은행 대표, 폴란드 전기위원회와 폴란드의 시멘트 생산자 협회의 수석 대표뿐만 아니라, 유럽위원회의 산업 배출물 팀장인 필립 프랑수아(Filip Francois)와 폴란드 환경부의 로만 글라스(Roman Głaz) 부국장이 함께 하였다.



폴란드는 인구 4천만 이하의 나라이며,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다. 로지 코트렐은 폴란드 시장 진출의 기회로 이번 포럼을 후원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IED 법률의 엄격한 배출 제한의 도입은 폴란드의 많은 기존 시설들에 대한 규제 이하의 배출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는데, 이는 특히 황산화물과 질소 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것이다.

로지 코트렐의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에는 500개의 지역 난방 설비공장과 180개의 CHP (열병합과 동력) 산업 발전소가 있다. 이 설비공장 몇 곳은 1990년대 이후, 빌딩의 온도 현대화 개선으로 인해 난방에 대한 필요감소, 그리고 새로운 IED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때문에 폐쇄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줄어든 지역 난방 설비공장과 함께 50개의 화력 발전소가 증설되었는데, 5,354에서 55MW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에 비추어, 로지 코트렐은 폴란드가 향후 회사를 위한 전략적인 성장지역이며, 이곳에서 자사가 선두 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IED(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EU 가입국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업 배출물의 영향을 줄이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침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2년 동안 기존 법률의 정제화 작업과 불필요한 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환경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인류의 건강을 위한 산업 배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KCCN 12주년 행사 개최

KCCN이 지난 6월 20일 12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 날 공식행사는 차순근 법인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우선, 각 구성원의 성실함과 노력에 힘입어, 지금까지 KCCN 업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KCCN의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과 슬픔을 공유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기억할만한 12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과 성실함으로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는 몇 가지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많은 결점들이 있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자기개발을 저해하는 것을 물리



치고, 보다 창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품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연설이 끝난 후, 차순근 법인장과 Jiang 부사장님이 7명의 사원에게 10년 장기근속에 대한 인증서와 금반지를 수여하였다. 지금까지 KCCN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27 명이며, 직원 수는 91명 (수습사원 6명)이다.

수상자들의 소감 중, 티안 샤오 밉(Tian Xiao Ming)이 가장 감동적이고 유머가 있는 연설을 하였다.

“저는 10년 장기근속근무로 인해, 금반지를 수여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근속 20년이 되면, 저는 자동차를 수상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웃음)

수상 소감이 끝난 후, 신입사원 6명이 그 동안 KCCN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을 공유했고, KCCN의 모든 구성원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 되었다.





KCTW의 2년

새로운 얼굴로
더 많은 고객을 위하여
더 가까이!

www.kctw.com.tw
KCTW의 새로운 얼굴

KCTW는 2014년 2월 28일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우리의 새로운 웹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현지시장에 더 많이 노출될 되어 현지의 더 많은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KCTW는 2012년 1월에 대만 주식회사로 지사가 변경된 이후, 2주년이라는 또 다른 기념할 만한 시점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우리의 지역고객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KCTW는 회사의 저력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다양성과 세계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는 KC 코트렐 중국, 베트남과 함께 협력하여 또 다른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CTW는 향후, 지역 사회가 근무하기 원하는 회사가 될 것이며, 현지시장의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전체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CTW에서 2014년 첫 이사회 개최

KC 코트렐 대만은 2014년 6월 13일에 대만사무실에서 2014년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들은“The Taichung Power Plant Project”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KC 코트렐 대만은 합리적인 이윤과 함께 향후 KC 코트렐 대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며, 품질저하를 야기하는 가격 경쟁은 우리의 핵심 역량의 성공과 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KCTW, 이틀간의 세미나 활동

KC 코트렐 대만은 2014년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모든 참여자가 브레인스토밍 활동에 참여하여 치열해지는 대만 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동안 모든 참여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미래의 경쟁적인 대만 시장에서의 KC 코트렐 대만의 사업 성공을 위한 가능한 사업전략을 제안하였다.

세미나 이후, 모든 참여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KC 코트렐 대만의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등불 날리기”를 하기 위해 뉴 타이페이에 위치한 Shifen지역으로 향하였다.



KC Cottrell

더 넓게, 더 멀리,
함께 나아갈 길을 꿈꾸다

KC코트렐 이태영 대표,
중앙아 2개국 경제사절단 참가

KC코트렐 이태영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원으로 선발되어 지난 6월 16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경제사절단은 양국 주요 경제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간담회, 오찬회,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하여 경제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네트워크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최근 에너지, 플랜트, 사회간접자본, 정보기술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의 수요가 급증한 만큼, 이번 경제사절단을 통해 향후 KC코트렐이 주력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분야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KC코트렐, 포스코-공급사 열린토론회 참석

지난 6월 10일 공급사 - 포스코간 열린토론회가 조선내화(주) 포항공장 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포스코 신임 회장(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포스코 측 인원과 KC코트렐을 포함한 공급사 측 에서 60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포스코와 공급사의 관계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성장 파트너임을 재확인 하였고 앞으로 공급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KC Cottrell 을 만나다



남아공 Interwaste,
Drakenstein 시정부,
그리고,
ENVEX2014

남아공 Interwaste사,
Drakenstein 시정부 관계자
KC 코트렐 방문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폐기물 관리 업체 Interwaste사의 임직원과 Drakenstein 시정부 관계자 가 KC코트렐을 방문하였다. Interwaste 사는 남아공에서 1개의 매립지를 소유, 6개의 매립지를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는 회사로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어 그 대응방안으로 자원회수 및 소각발전시설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소각

산업 현황과 KC코트렐의 EPC 및 O&M수행능력을 확인하고자 방한하게 되었다.

방문 일정은 Interwaste 사의 요청을 중심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구리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의 처리시설을 먼저 돌아보았다. 그리고 KCMS, KC한미산업이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KC환경개발 매립지, 매립 후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설비를 제안하기 위해 KC화성 매립지 1MW 모듈형 태양광발전시설, KC Glass(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 KC솔라에너지가 EPC, O&M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르노삼성 자동차 공장 주차장 부지(20MW 모듈형 태양광발전시설)도 방문하였다. 빠듯한 일정에도 KC네트웍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한 고객들은 기대 이상의 견학을 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KC네트웍사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KC Cottrell ENVEX2014 참가

지난 6월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COEX 전시장에서 KC코트렐이 제36회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ENVEX2014)에 참가하였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주최로 국내 300여개의 환경 관련 업체가 참여한 이 전시회는 올해 36회를 맞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회이다. KC코트렐은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에너지관에서 도로터널집진기, CCS, 독립전원 분산시스템, 태양광에너지, 바이오매스 플랜트 등의 신규사업 업무를 통해 당사의 EPC 수행 능력 및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에 대한 홍보, 독립분산전원 시스템 등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장기

(2014.05.26-2014.06.01)



안녕하세요. 바이오매스 플랜트 PM을 꿈꾸는 엔지니어 이현진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환경산업기술원 고용연계과정 실습으로 KC코트렐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지난 5월 말, 입사 5개월 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땅을 밟는 파격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성연 상무님, 홍은숙 대리님과 함께 다녀온 첫 출장의 소감을 크게 네 가지 1)현장방문, 2)이동, 3)회의, 4)식사 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현장방문 :

저의 첫 일정은 목재펠릿생산기계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분들과 함께 Sappi소유의 목재소인 Busby Sawmill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펠릿 원료샘플을 채취하고, 프로젝트부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Busby Sawmill에서는 소유지에서 키운 나무 중에서 크기가 충분한 목재의 Core 부분만 건조시켜 상품화하고, 그 외의 크기가 작은 목재는 적당히 토막 내어 건조용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의 연료로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목재펠릿의 원료가 될 Bark, Off-cuts, Woodchips, Sawdust 등의 Wood Waste를 공정 및 수종 별로 총 8개의 샘플을 채취하였고, 귀국



후 제가 직접 분석시험업체에 삼성분분석, 원소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동 :

남아공까지 20시간의 비행과 남아공 내에서 이동할 때 차안에서 보낸 시간이 전체 4박 7일 일정에서 시간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시 숙소는 Johannesburg공항과 연결된 City Lodge Hotel이었습니다. 호텔을 기준으로 각 방문지까지의 거리는 Busby Sawmill은 260km, Woodlands Office Park는 30km, Sappi 본사는 30km였고, 이를 전부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창밖에 펼쳐진 초원에는 스테이크 용 소들이 무리지어 풀을 뜯고, 또 busby sawmill까지의 장거리 이동 중에는 초원에서 삼림으로 주변 식생대가 바뀌는 것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별레를 쫓기 위해 별판에 불을 놓은 곳도 드물지 않게 보았고, 아프리카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3) 회의 :

당시 Sappi가 발주하는 여러 바이오매스발전플랜트 프로젝트들이 REIPPP(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 Program) 등 록을 앞둔 시기였으므로, 호텔 안팎에서 여러 건의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아공 현지 건설업체 및 남아공 지사를 둔 한국 업체와의 각각의 미팅에서는 우리 측에서 그간의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부터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면, 견적에 필요한 질의응답이 오간 뒤 견적을 요청하는 것으로 1시간 남짓의 대화가 십이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흘러갔습니다. Sappi 본사에서는 지난 4월 방한했던 Johan Myburgh씨의 주도로 Ngodwana 프로젝트 Site에 대한 질의응답 및 검토를 마쳤습니다. 쟁방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효과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우리 기술영업팀에서 필요한 스펙은 소통능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4) 식사 :

남아공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스테이크와 와인, 과일은 양과 질 가격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만 원 정도에서 초대형 고급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회의할 때에는 원두커피(또는 루이보스 티), 크림, 설탕이 항상 갖춰져 있었고, 또 식당에서는 메인 메뉴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음료부터 우선 주문해야 한다는 것은 생소한 문화였습니다.



7시간이라는 시차 때문인지, 아프리카라는 미지의 땅이어서인지 꿈꾸듯 황홀하게 보낸 4박 7일이었습니다. 서류에서 보던 사업이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에 함께 해 보니 계약 프로세스와 설계도가 좀 더 친숙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모든 문화적, 업무적인 경험들은 제가 앞으로 KC코트렐의 에너지플랜트기술영업팀 일원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바이오매스플랜트 수주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낱 신입 사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회를 준 KC코트렐에 감사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경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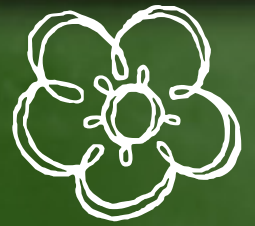
산업혁명 이후로 200년 간의 산업활동은 지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1초당 78평방미터의 목초지가 사막으로 변하고,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보다 60%이상을 소모하는 현실에서 2050년까지 인구가 30억 명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자원소모는 급격한 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와 자원소모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 사회적 불평등 가속화 등 전지구적인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추구할 가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등장한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다.

그리하여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에 따른 성장 한계에 대해 최초로 국제적 인식을 제기하였으며, 1987년 160여 개의 다국적 선진기업의 연합체인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환경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ronmenat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이 처음이자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통적인 생산과 소

비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세대 모든 인류의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한다는 것이 적어도 현재 수준의 환경과 물질자원을 남겨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환경개선,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빈곤의 경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1800년대 사회복지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라커펠러(John D. Rockefeller)의 자선적 선행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학계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으로 가장 먼저 자본주의가 발달하였던 미국에서였다. 초창기 CSR의 형태는 기업의 자선 행위를 의미했다. 이 후, 미국의 시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운동 등 새로운 행동주의 운동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기업은 새롭게 윤리적인 영역과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1930년대 미국에서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사회에 대한 기부를 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경제적 이득 창출'이란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보웬의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CSR이란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한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을 거쳐 1970년대 케롤의 경제, 법, 윤리, 자선적 책임의 4단계로 이루어진 CSR 피라미드를 통해 CSR의 정의가 확산되었고, 1980년대 책임관리(Responsible Care)와 같은 CSR의 규범이, 1990년대 ISO14001, SA8000과 같은 CSR의 기준이 기업의 거버넌스 규범과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CSR은 1984년 포팔 폭발사고, 1990년대 초반 나이키의 폭력적인 노동관행, 1995년 석유회사인 쉘의 브랜트스 파라는 석유 굴착장치 침몰, 2001년 회계부정으로 인한 엔론의 파산, 일본의 유키지루시유업의 우유 식중독, 국내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대중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부가되기 시작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급속한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의 영향력 증대, 소비자 행동의

변화, 기업간 경쟁격화가 맞물리면서 그 관심이 부쩍 커졌으며, 국내에서는 닷컴 열풍에 비견할 정도로 수많은 언론보도는 물론 관련 산업까지 만들어냈다.

지속가능경영은 위에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두 개념이 결합해서 태동한 개념이다. 즉, 지금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아직 보편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투명경영, 환경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한 용어가 다양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S부문 소각로 3개회사 TOP Academy

TOP(Total Operational Performance)는 ES부문 소각로 3개회사 (KC환경서비스,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가 원가를 절감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사업이 유사하다는 장점을 이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McQs(맥큐스)와 컨설팅을 시작한다.

맥큐스는 과거 KC코트렐과 KC글래스의 각 CC20, High-Five 프로젝트를 수행한 컨설팅 회사이다.

본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컨설팅을 주도하는 인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TOP Academy가 실시되었다. 각 회사의 TF인원들이 7/1~7/2 이틀 동안 제주도 상호원에서 'TOP Academy'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본 프로젝트는 2014. 7. 1 부터 준비단계를 시작으로 7/8부터 한 달간 3개 회사를 1주동안 돌며 문제진단을 위한 TF활동을 수행하고, 문제해결 단계로 여수, 창원, 전주의 순서로 남은 9주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KC코트렐 임원 및 KC솔라에너지 임원 교육

6월16일 본사 강당에서 신윤성박사(산업연구원 미래산업연구실)를 초빙하여 KC코트렐과 KC솔라에너지 임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가능원을 통하여 CEO와 임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미래, 미래산업, 환경산업 전망”으로 다양한 에너지의 수요 및 공급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모습과 미래산업으로서의 환경산업을 전망하는 교육이었다. 에너지의 변화 관점에서 현재 KC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모델의 지속성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동시에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Nol-Tec Europe New Web Site www.nol-teceurope.com

놀텍유럽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과거 홈페이지에 비해 다채로운 색상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콘텐츠 검색 기능이 개발되었으며, 콘텐츠 다운로드 메뉴가 새롭게 생겼다. 새로운 웹페이지에는 기존 회사 정보 외에도 놀텍 유럽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법규 등 새로운 정보들과 디바이스와 장소의 구매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고객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Power-Gen Europe 참가기

Power-Gen Europe 은 발전 (Power Generation)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행사이다. Power-Gen 전시회는 Power-Gen International (미국) 에서 시작하여 Power-Gen Europe, Power-Gen Asia, Middle East, Africa 등 다양한 시장에 맞추어 확장해 가고 있다. 본 전시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발전과 관련한 장비 업체 (터빈, 보일러, 발전기 등) 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행사이지만, 전세계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발전 설비 이외에 환경 업체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는 전시회이다. 올해 Power-Gen Europe 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었으며, Lodge Cottrell Ltd. (LCUK)과 Nol-Tec Europe 이 공동 부스를 개설하고 KC Cottrell Network 의 역량과 기술력을 유럽 시장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Power-Gen Europe 의 경우, 유럽만이 아니라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 및 동유럽 등지의 잠재 고객과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좋은 장소가 된다. 또한, 환경 업계의 여러 협력사와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관계를 발굴해 내기에 좋은 장소가 된다.

올해 전시회의 동향은 유럽 시장의 경기 침체와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로 인하여, 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환경 시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KC STO 폐지 계획

KC코트렐이 현재 사용 중인 KC-STO 사내 공용서버를 올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서버 내에 있는 활용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작업이며, 또한, 공용서버 보안의 취약성과 서버 용량 부족 및 서버 노후화로 인해 2014년내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된 진행계획은 8월말까지 해당 폴더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모든 폴더의 조화권한만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부터 정리가 완료된 폴더 이관을 시작으로 부분 폐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모든 공용서버의 K-ONE 이관 완료 후, 잠정 폐쇄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공용서버는 서버 사용연한에 따라 백업용 서버로 활용할 예정이다.

8월말까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폴더는 별도의 이관작업 없이 폐지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